



부처님 생애를 벤치마킹하라

김경남(한국종합전시장-COEX 상무이사)

(기획연재) 불교와 경제

- ① 생활경제 속에서 불교를 찾다
- ② 인생을 경영하라
- ③ 불자CEO에게 듣는 자기 경영법



불교와 경영, 두 개념은 서로 동떨어져 보이지만 사실 경영철학이야말로 불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 경제활동이 '모든 사람을 이익 되게 하라'는 부처님 말씀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종교에서 경영 패러다임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11월 23일 '불교와 사회 포럼'이 개최했던 창립세미나에서 서강대학교 노부호 교수는 "불교사상의 핵심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기업경영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불교경영은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방경영'이며 '공동체 경영'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를 기업과 기업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경남 한국종합전시장(COEX) 상무이사는 코엑스의 터줏대감이자 성실의 전설로 통한다. 78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공채 입사한 후 과장 2년 만에 차장으로, 1년 만에 다시 부장으로 가파른 승진을 했으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김 상무이사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올바른 생각과 철학으로 행동하는 불교인은 언제나 이웃과 가족에게 환영을 받는 법"이라며 "불교를 중심에 놓은 생활"이 비결이라고 웃었다.

매일 아침 8시, 김 상무이사는 남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5개의 일간지를 훑어본 뒤 사무실 한쪽에 걸려둔 달마상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바쁜 일정 때문에 좀처럼 사찰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무 시작 전이나 명상을 하고 있다.

안심입명(安心立命, 마음을 편히 하여 흔들림이 없음)이야말로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고위관

리자나 CEO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그 때문에 김 상무이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수행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곤 한다.

하지만 김 상무이사가 불교에서 찾은 건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다. 흔히 경제나 종교라 하면 막연히 생활과 동떨어진 세계로 여겨는 사람이 많지만, 김 상무이사에게는 세상만사가 경제 아닌 것이 없고 불교 아닌 것이 없다. 부처님이야말로 김 상무이사의

이런 '질 높은 서비스와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믿음이다. 리플이 잡애라 발전한다는 논리가 연기법을 통해서 풀리는 셈이다. 한 명의 최고 경영자가 연기법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심어준다면, 그 기업은 높은 고객지향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품질과 서비스, 혁신 등 경영근본 원칙을

인생·자신·종생 경영한 부처님 '경제인의 CEO'

'대기설법'은 고객불편 최소화, 고객만족 가르침

질 높은 서비스는 곧 좋은 결과, 연기법과 상통

'경영철학의 역할모델'이기 때문이다.

종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평생 동안 '대기설법'을 펼쳤던 부처님의 인생은 '고객불편 최소화'를 지향하는 기업에게 지금도 큰 가르침을 준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대중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대화에 귀 기울이는 부처님의 태도 역시 귀감이 된다. 김 상무이사는 가정이든 사회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의 시간에는 30대 직원이 30분 이상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항상 부하 직원이 먼저 발언의 기회를 갖는다. "불교의 자자와 포살 제도를 도입해 서로가 먼저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대화하는 회의방식을 업무에 두고 진행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업철학은 연기법이다. 김 상무이사는 모든 업무를 진행할 때 연기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꼼꼼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린다. 그가 생각하는 연기법

강조하는 미국경영학에 비해 동양의 경영학은 '모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특히 내부 고공인의 만족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동양경영학은 고용인의 만족이 소비자의 만족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윈-윈(Win-Win)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불교의 자리타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볼 수 있지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제행무상 또한 언제나 변화하는 시장을 상대해야 하는 기업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법칙이다. 훌륭한 경영인의 조건은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행에 결부하는 것으로, 실천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김 상무이사는 불교경영의 실천원리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팔정도 경영철학과 결합해 지침으로 삼을 것을 권했다. 이은비 기자 renby@buddhapia.com

부다의 경제학(3)

행복해지기 위해 일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만큼 보답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회사에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니, 혹은 내가 친구에게 이만큼이나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니, 하는 등등의 수많은 불평 불만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들으면서 지낸다. 저녁에 한잔 술을 걸치게 되면 빠지지 않는 안주가 바로 이러한 불평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이란 바로 교환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교환을 전제로 한 경제 행위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주고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거래 상대방은 서로 만족하고 좋은 관계를 유

계 될 것이다. 무소유의 정신이란 문자 그대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소유의 정신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연연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결국 무주상보시와 무소유의 가르침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는 한 반대급부로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탐욕은 그 속성상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한 만족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다.

단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고 받는 행위가 공평할 때 서로 만족 보시행위라 깨닫고 물질에 집착 말아야 돈 추구보다 좋아하는 일 찾도록

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공평하다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실제 거래, 또는 교환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똑같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을 바라고 일하는 교환의 개념으로 경제 행위를 하는 한 우리는 함께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강경>에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는 말이 있다. 보시할 때는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내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지 말라는 말씀 이리라. 보다 적극적인 현대적 의미로는 진정으로 남을 위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 대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 또는 빛과 친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들이 대가로 주는 칭찬과 물질적인 보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시행위이며 보시행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의 본질이 보시행위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대가에 연연하지 않

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일이 즐겁지 않겠나.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보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일에 대한 대가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필히 그 일로부터 소외되기 마련이다. 일의 결과로 얻게 되는 반대급부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은 그 것 자체로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로부터 소외된 삶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돈으로 행복을 사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은 고객 및 소비자들에게 겸허하게 봉사한 결과로 얻게 되는 보너스라는 경영학 이론이 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그 누군가를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대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해인사 종(鐘)

'해인사 종(鐘)'은 한국의 종 시리프로 출시된 작품 가운데 두 번째 청동 제품입니다. 조선시대 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종으로 평가 받는 해인사 대적광전 종(보물 제1253호)을 그대로 축소(폭230mm×높이265mm) 제작한 제품으로 소리가 맑고 청아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조선종 특유의 둥근 종형과 섬세한 문양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가격 200,000원

황우석팀 연구재개를 위하여 후원에 동참합시다

후원 출범 선언문



이 모여 1인 일만원씩 10개월동안 10만원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10만명만 참여하면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황우석박사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완성할 것입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것이며, 그것은 이 민족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러나 현재 황우석박사팀은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를 위한 뜻을 같이한 여러분체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황우석박사를 후원하는 후원을 출범하오니 우리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합시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산업전반에 선진국형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시점에서 배아줄기세포 진위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한 줄기세포 선두자리를 놓고 국가간의 경쟁이 가속되면서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황우석과 줄기세포는 우리의 꿈이며! 우리민족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 세계속에 대한민국이 굳게 떠오르는 시대의 개막이었으나, 그러나 지난해 말 MBC-PD 수첩의 보도와 미즈메드 노원장의 폭로로 우리 국민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국민적 실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모한 보도와 과격한 폭로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사이언스 논문조작이니 뉘니해서 사회전체가 혼란한 생활속에 빠져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황우석팀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형성을 해 주자고 국민 대다수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우석박사 역시 황우석연구팀이 원천기술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입증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황우석박사는 스너피복제에서 입증했듯이 동물복제, 영장물복제는 세계최고의 과학자입니다. 또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배반포기 까지는 황우석박사팀의 확실한 기술임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는 대한민국의 독보적 기술이며, 황우석박사팀이 완성 시킬 것입니다. 줄기세포연구소는 최소한 기반설비 비용이 100억정도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국민이 만드는 연구소가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황우석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1인 일만원씩 10개월동안 10만원에 동참합시다. 그렇게 10만명만 참여하면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황우석박사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완성할 것입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것이며, 그것은 이 민족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러나 현재 황우석박사팀은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를 위한 뜻을 같이한 여러분체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황우석박사를 후원하는 후원을 출범하오니 우리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합시다.

3월 1일(수) 오후 6시 광화문 촛불집회에 불자들이 앞장섭시다

후원동참 방법 및 다짐

1. 1인 1만원씩 10개월만 동참합시다.
2. 10만원씩 10만명이 참여하면 100억됩니다.
3. 100억을 모으면 줄기세포 연구재개를 위한 기반시설을 세울수 있습니다.
4. 우리 불자들이 황우석팀 후원에 앞장섭시다.

- 후원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 023501-04-070467
농협 : 053-01-266768
우체국 : 010579-01-003775
예금주 : 황우석원불교연대
*입금후 꼭 사무국에 전화주시요.

황우석팀 연구 후원을 위한 범 불교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법타스님(대한불교조계종 10교구본사 은혜사주지) ○ 철안스님(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 김재일(동산반야회 이사장)

사무국 02)732-9595 팩스 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